

청년 공무원들과 소통·시정 비전 공유

우범기 전주시장, '청원들과의 소통 한마당' 행사 갖고 소통·공감으로 전주 발전 위한 힘 모아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 경제의 판을 바꿔 강한경제 전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18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청원들과의 소통 한마당' 행사에서 전주시의 미래를 이끌 청년 공무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민선 8기 시정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우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후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6급 이하 직원들과 시정철학을 공유하고, 격 없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전주 발전을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18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청원들과의 소통 한마당' 행사에서 전주시의 미래를 이끌 청년 공무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민선 8기 시정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우 시장은 청년 공무원들에게 시정 운영 방향과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향후 전주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직원들이 업무 중 겪었던 다양한 고충과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시장님 ~ 질문있습니다!' 시간을 진행했다.

시는 청년 공무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청원공감한마당 행사에 이어 8월과 9월 2회에 걸쳐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소속 국·과장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해 핵심 직역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하고,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년 공무원이

우리 전주시의 미래이자 중심이며, 자유롭게 소통하고 대화하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젊은 직원들과 허물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정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문화체험교실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방학맞이 문화체험교실 '인기'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요리·원예·공예체험 등 진행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안성균)는 여름방학을 맞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문화체험교실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4층 청소년 공간에서 열리는 방학맞이 문화체험교실은 지역 청소년들이 무더운 방학 기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요리와 원예,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지난 7월 24일 소시지빵 만들기부터 시작하여 지난 16일까지 총 14회의 프로그램에 전주시지역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400여 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1회당 20여 명이 참여했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인소문을 타며 참여자

수가 늘어 최근에는 각 회차별로 3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센터가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의 참가자가 만족감을 드러냈으며, 향후 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사업에도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방학맞이 문화체험교실은 오는 9월 2일까지 총 7회 더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방학맞이 문화체험교실이 끝난 이후에도 4층 청소년 공간 개방 시간을 확대하고,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자치활동 지원 등을 통해 인도소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서학예술마을도서관 담쟁이갤러리 기획전시

31일까지 서학동 예술가 김성균 작가 회화 작품 전시



서학예술마을도서관에서 서학동 예술가인 김성균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전주시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이 서학동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의 전시공간으로 제공했다.

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서학예술마을도서관 담쟁이갤러리에서 서학동 예술가인 김성균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김성균 작가는 '정체성'을 주제로 한 회화 작품 9점을 선보인다. 김성균 작가는 전북대학교 및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각종 개인전 전시와 서학 관광 및 첫 마중 관광지에서 조형물 작품 제작에 선정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작가는 또 이날 재능기부 활동으로 전시 작품 설명과 더불어 서학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학동 예술가와의 협업을 진행하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은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지역예술가와 작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도서관 이용자에게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미술 작품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예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예술은 보는 만큼 보여지는 것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 예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농촌마을 농로포장사업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편의시설이 부족한 농촌마을의 농로 및 마을안길을 정비하기 위하여 2023년 농촌마을 농로포장사업을 추진한다.

농촌마을 농로포장사업은 완산구 5개동(동서학, 평화2, 삼천3, 효자4·5) 67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에는 1억원을 확보하여 삼천3동 독배마을 농로포장 공사(350m), 석산마을안길 포장 공사(40m)를 추진할 예정이다.

완산구는 사업대상지 현지실사를 완료했고, 현재 실시계획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9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수혜도, 공공성,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농촌마을의 불편사항에 대해 연차적으로 해결하여 농촌마을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교통과 보행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고 도심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일제적인 정비 작업을 추진한다.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정비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정비 작업을 위한 3개 반 12명과 차량 3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정비 작업의 핵심 목표는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등의 단속과 철거이다. 특히 대로변과 가로수에 게시된 불법광고물은 신속하게 제거될 예정이다.

구청 단속반 이외에도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체결하여 주말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추가적인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 용역을 통해 상업용 불법 광고물인 현수막뿐만 아니라 표



시공간이 만료된 정당현수막과 행정기관의 홍보용 현수막도 정비할 계획이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 작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보호 및 도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